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 배경

이 기획의 연재순서가 거꾸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듯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건축계가 성립하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이 기초가 되었다고 생각되어 일제강점기의 건축가 몇 분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기로 하였다.

우리가 이해하고 소화하였는가와는 상관없이, 근대라는 것이 이 땅의 곳곳에 껌데기이든 의식으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역사중 가장 아픈 대목인 일제강점기였다. 건축분야에서도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 도편수들의 맥은 무대의 뒷편으로 사라져 버리고, 서양식 건축물을 설계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무대 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버렸던 것이다. 이 기획연재에서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건축가들 모두가 서양식 건축을 구사하는 사람들이었다. 아니, 최근 한 세기 동안 건축계의 흐름이 그러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이 있으므로, 일제강점기에 건축교육을 받고 이 땅에 새로운 건축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나간 초기의 건축가들을 모시는 것이, 앞으로 이어질 연재와 오늘날의 우리 건축계를 이해

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이 글의 본론에 들어가서 언급될 사항이지만,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고 건축설계 분야에서 활동 중이던 사람들은 위의 세 분 말고도 많은 분이 있었다. 박인준, 김세연, 이천승, 장연채, 유상하, 유원준, 김희춘, 김재철 같은 분들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위의 세 분만을 모시는 사연을 말하자면 이러하다. 박길용은 최초의 한국인 건축가이며, 광복전에 세상을 타계하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모두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박동진은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남기는 것이 광복이전에 많으며, 박길용과는 다른 경향의 건물들을 선 보이고 있는, 그 시대의 한 기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윤 역시 광복이후에도 건축가로서 활동을 하였으나, 역시 그 많은 작품들이 이 시대에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여기에서 모시지 않은 분들은, 이 시대에는 아직 활동 초기였고, 광복후, 대한민국 시대에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하였던 분들이라 앞

한국의 건축가—탄생의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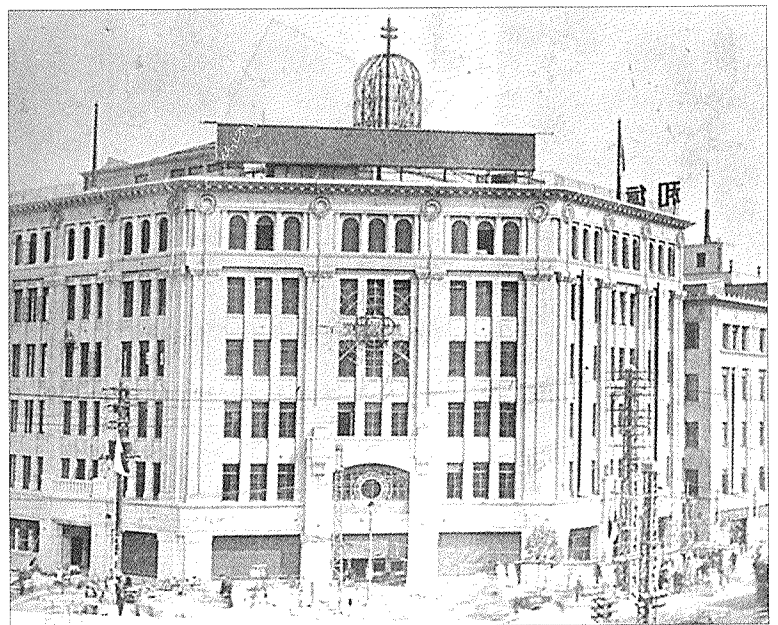
Korean Architects - the Colonial Period

일제 강점기의 건축가 3인(박길용, 박동진, 강 윤)을 중심으로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oon In-Suk

1. 한국인 건축가의 탄생배경
(필자 / 윤인석)
2. 박길용(1) - 건축수업과 활동
(필자 / 윤인석)
3. 박길용(2) - 작품과 건축사상
(필자 / 윤인석)
4. 박동진 - 생애와 작품
(필자 / 윤인석)
5. 강 윤(1) - 건축과의 만남
(필자 / 김승제)
6. 강 윤(2) - 강윤과 Vories
(필자 / 김승제)
7. 강 윤(3) - 해방 후 작품활동
(필자 / 김승제)



화신백화점(1935~37, 박길용 설계)

(표1) 京城高等工業學校 教授陳

專任教授				
氏 名	出身學校(卒業年度)	在 任 年	擔 當 科 目	參 考 事 項
小河弘道	東京高等工業學校(1907)	1920~1945	力學, 鐵筋, 構造	
山形靜智	京都高等工藝學校(1912)	1921~1945	建築計劃, 建築史	總督府中央試驗所技師兼任
藤島玄治郎	東京帝國大學(1923)	1923~1929	建築史	總督府技師兼任
野村孝文	東京帝國大學(1929)	1929~1945	建築計劃	
李均相	京城高等工業學校(1925)	1929	材料, 構造	
葛西重男	東京帝國大學(1927)	1930	建築構造	
講師陣				
氏 名	出身學校(卒業年度)	赴任年度	擔 當 科 目	勤 務 先
土井軍治	東京美術學校		設計	
杉山信三	京都高等工業學校(1929)		建築史	總督府學務局社會 教育課
吉川清一	東京帝國大學(1927)			清水組京城支店
加納辰夫				
元吉勇太郎	東京帝國大學(1935)			警務局防謹課
中島猛矣	東京帝國大學(1911)	1922	設計	總督府建築課
今村重藏				
沖良武				
鳥井捨藏	東京帝國大學(1928)			警務局防衛課警察
萩原孝一	東京帝國大學(1921)			總督府技師
守津哲夫	京城高等工業學校(1925)			京城工業學校教師

으로 일제강점기의 애기가 끝나면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으리라 여겨져서 다음으로 미루기로 하였다.

■ 한국인 건축가 탄생의 과정

우선 한국인 건축가가 탄생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건축교육이 시작 되는 것은 경성고등공업학교에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다. 물론, 이 학교에 앞서서 몇 가지의 기술을 가르치던 교육 기관이 있기는 하였으나, 본격적인 건축교육을 행하였다 고는 보기 어렵다.

■ 건축교육기관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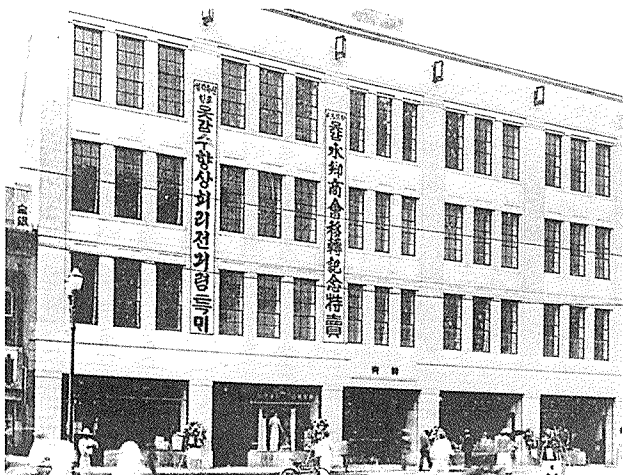
- 1. 경성고등공업학교
- 1-1. 설립에 대하여

조선총독부는 1911년에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1914년에 전문학교 규칙을 제정하였다. 1916년 4월 총독부 관립 경성공업전문학교가 개교하였고, 그 안에는 건축과, 토목과, 염색과, 요업과, 응용화학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교육연한은 3년이었다. 1916년에 건축과에서는 7명이 졸업하였다. 이 학교는 1922년, 학제개편에 따라 경성고등공업학교로 개칭하였다. 오늘날도 이 학교를 속칭 '고공(高工)'이라 하는 것도 이에 연유하는 것이다.

1-2. 교수진 구성

일제강점기 조선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거의가 일본인 자녀들이었고, 조선인의 교육기회는 대단히 제한되어 있었다. 경성고공도 예외는 아니어서, 학생과 교수는 일본인들이 대다수였다. 조선인은, 그 학교 29년의 역사 중에 17명중 1명이었다. (표1 참조)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균상을 제외하고는 모



한청빌딩(1935. 박길웅 설계)



이문당(박길웅 설계)

두 일본인이었다. 교수, 강사진은 대부분이 동경제국대학 출신들이었고, 2-3명 가량의 전임교수를 채용하였고, 나머지는 조선총독부를 비롯하여 경찰국, 민간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이 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한 적이 있는 藤島亥治郎은 1922년 동경제국대학 4학년 시절에 졸업논문「日朝建築交渉史論」작성을 위해, 조선을 방문했던 일도 있고 은사인 관아정의 추천도 있어, 대학 졸업 직후인 1923년 5월 조선으로 건너 왔다. 1924년부터는 총독부건축과 기사도 겸임하였다. 1926년 5월부터 1928년 3월까지 총독부에서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주기도 하여서, 이 동안 벨기에를 비롯한 유럽각국을 방문, 시찰하였다. 그는 1926년 5월 일본으로 돌아가, 동경제국대학의 조교수가 되었다. 경성고공에서 담당하였던 과목은, 교수 부족으로 인해 건축사와 설계 이외에 구조계의 과목도 맡았고, 결국에는 철골구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목을 담당하였다 한다.

藤島亥治郎은 당시의 전임교수 중에서 유일한 생존자여서, 당시 학교의 상황을 말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인물이다. 여기에서 당시 경성고공의 학생들은 어떠한 내용의 공부를 하였는지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藤島亥治郎의 증언을 정리하여 1920년대의 학교상황에 대하여 잠시 알아 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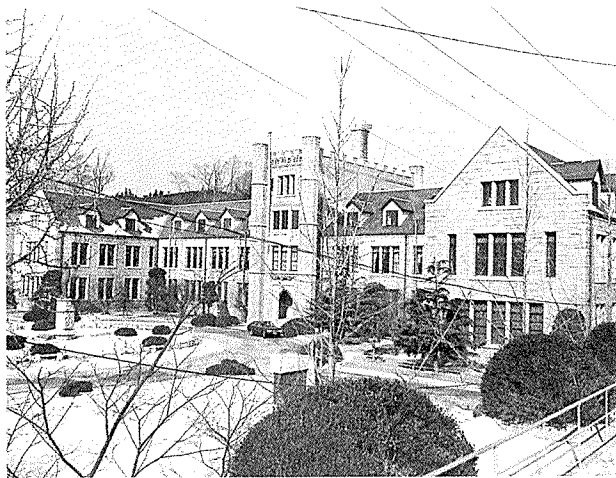
“학교에 부임했을 때, 동승동 공업시험소 구내의 벽돌 2층건물 1층에는 토목과, 2층에 건축과 교실이 있었고, 교관실에는 전교원이 잡거하고 있었다. 교관으로는 주임교관인 小河弘道씨, 조교

수 山形靜智씨, 강사로 土井軍治씨가 있었다. 小河씨는 소박한 중년신사로 건축구조학을 담당하고 있었다. 山形씨는 부드러운 말투의 사람이었다. 여성같은 부드러움으로 의장, 계획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전에는 만주철도주식회사 사원으로, 열차식당의 아르·누보로 디자인한 스탠드·글래스가 그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土井軍治씨는 동경미술대학(지금의 동경예술대학)을 졸업한 건축가로, 山形씨와는 전혀 반대로 예술가다운 호탕한 성격으로 생각한 바는 거침없이 말해 버리는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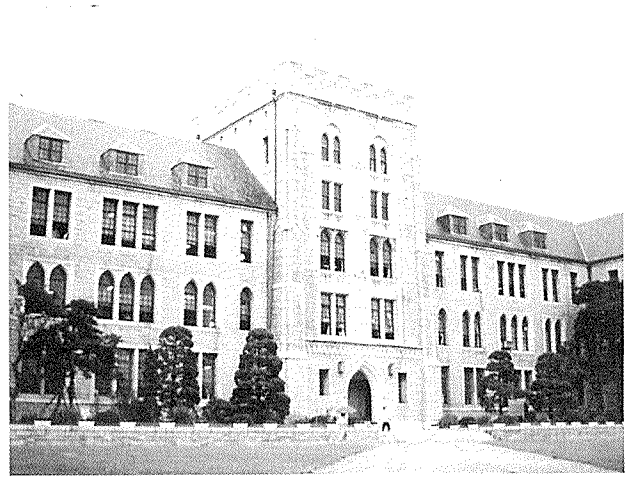
“학교에서는 1학년 한테 일본건축사, 2학년 한테 서양

(표2) 神戸高等工業學校建築科教科課程

學 科 目		建 築 科								
		第1學年每週授業時數			第2學年每週授業時數			第3學年每週授業時數		
		第1學期	第2學期	第3學期	第1學期	第2學期	第3學期	第1學期	第2學期	第3學期
必 修 學 科 目	身 體 操	1	1	1	1	1	1	1	1	1
	國 語	3	3	3	3	3	3	3	3	3
	數 學	4	4	4	4	4	4	3	3	3
	物 理 學	5	5	5	1	1	1			
	應 用 力 學 及 構 造 強 弱	3	3	3	3	3	2			
	建 築 構 造	2	2	2	1	1				
	鐵 筋 混 凝 土 及 鐵 骨 構 造				4	4	4			
	建 築 材 料	2	2							
	施 工 法							2	2	
	建 築 史 (日 本, 東 洋, 西 洋)	2	2	2	3	3	3	2	2	2
	建 築 計 劃			2	2	2	2	1		
	測 量 學							3		
	自 在 實 驗	1	1	1						
製 圖 及 實 驗	6	6	6							
小 計	7	7	7	10	12~16	12	21~26	23~28	25~30	
小 計		39	39	39	32	34~38	33	36~41	34~39	34~39
選 擇 學 科 目	家 屋 衛 生 工 學							2	2	2
	日 本 建 築 法				2	2	2			
	裝 飾 法 學				2	2	2			
	庭 園 學							1	1	1
都 市 計 劃 及 建 築 法 規							3	2	2	
總 計		39	39	39	36	39	37	39	39	39
參 考 學 科 目	地 震 學	1學年每週1時間								
	經 營 法	1學年每週2時間						2	2	2
	工 藝 史	1學年每週1時間								
	裝 飾 畫 學	1學年每週3時間			3	3	3			
	影 畫 塑 像	1學年每週3時間			3	3	3			
特 別 講 義										



중앙 중학교 본관(1936년, 박동진 설계)



보성전문학교 본관(1934년, 박동진 설계)

(표3) 課目系統別每週授業時間表

		デザイン關係		設計製圖關係		環境工學設備關係		材料・施工・一般構造關係		構造力學・構造關係		その他		計	
		每週授業時間數(3期制)	2期制に換算	每週授業時間數(3期制)	2期制に換算	每週授業時間數(3期制)	2期制に換算	每週授業時間數(3期制)	2期制に換算	每週授業時間數(3期制)	2期制に換算	每週授業時間數(3期制)	2期制に換算	每週授業時間數(3期制)	2期制に換算
昭和9年	横柄高工	57	38	123	82	3	2	21	14	30	20	18	12	252	168
		22.6		48.8		1.2		8.3		11.9		7.2		100%	
	福井高工	34	23	131	87	3	2	21	14	33	22	6	4	228	152
		15.1		57.3		1.3		9.2		14.5		2.6		100%	
	名古屋高工	67	45	142	95	9	6	16	10	26	17	3	2	263	175
	25.7		54.3		3.4		5.7		9.7		1.2		100%		
仙台高工	43	29	146	97	3	2	17	11	33	22	6	4	248	165	
	17.6		58.8		1.2		6.7		13.3		2.4		100%		
神戸高工	63	42	134	89	6	4	24	16	27	18	4	3	258	172	
	24.4		51.7		2.3		9.3		10.5		1.8		100%		

日本建築學會編「近代日本建築學 發達史」より

건축사를 가르쳤다. 그렇지만 도서관은 빈약해서 구조재료 분야의 책이 몇 권인가 있었고, 정작 의장, 예술, 문화, 역사관계는 전무하였다. 단, 희귀하게도 “朝鮮古跡圖譜”가 있어서, 조선 땅에 사는 건축가라면 조선건축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 모든 사진을 보여 가면서 강의다운 강의를 하였지만, 학생들의 맹렬한 반발을 샀다. 그들은 공학기술을 습득하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고건축이나 건축의 예술이념 따위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경성고공의 강사 土井씨 한테 동경미술대학의 岡田信郎씨의 강의노트를 빌려서 베껴 쓴 일이 있다. 그는 오토·와그너로부터 시작하는 신건축운동 이래 구미건축가의 움직임과 작금작품을 통해 극명하게 근대건축의 사적구성을 확립하고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그 노트

에 정리되어 있었다. 이 노트와 고교때 읽었던 藏田周忠씨의 “近代建築思潮”를 素材로 나의 근대건축사가 정립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에 나는 표현주의에 열광하고 있었다. 표현과 영화의 무대세트를 목탄집가 특히 그리고 “표현파의 연극”이라고 제목을 붙여 공연하였던 적도 있고, 또 “朝鮮と建築” 1925년 3월호에 한스·페르치히를, 4월호에는 팔츠부르크의 대극장을 번역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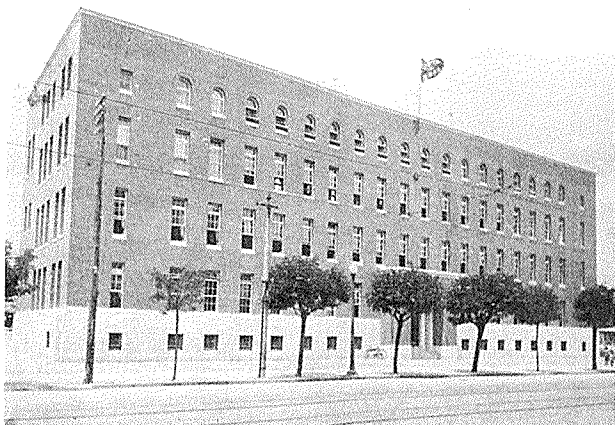
1929·30년부터 교수가 된 野村孝文, 葛西重男에 대해서는 “朝鮮と建築”의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해 보려 한다.

野村은 ‘조선의 주택에 대하여’ (1932년 9월-1933년 2월), ‘전등조명과 건축에 대하여’ (1933년 1월-4월), ‘조선궁실의 온돌에 대하여’ (1940년 3월)를 연재하였으며, 藤島亥治郎의 후임자로 건축사와 계획방면에 관심

(표4) 京城高等工業學校卒業生年度別統計<日本人/朝鮮人(計)>

年度	1919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人數	3/2(5)	5/1(8)	2/0(2)	4/0(4)	3/2(5)	4/2(6)	9/1(10)	9/4(13)	5/1(6)	10/0(10)	11/1(12)	12/1(3)	8/2(10)	14/1(15)	9/0(9)	11/1(12)
年度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年3月	1941年12月	1942	1943	1944	1945	終戰當時2年生	終戰當時1年生	總計	
人數	12/1(13)	7/3(10)	10/2(12)	4/4(8)	7/7(14)	9/5(14)	11/7(18)	8/3(11)	14/4(18)	15/2(17)	17/2(19)	18/2(20)	36/1(37)	51/1(52)	342/63(405)	

(資料: 京城工業高等學校同窓會編「東崇工業會會員名簿」(1986))



조선일보사옥(1935년, 박동진 설계)



일본조합경성기독교교회(광복후, 남산감리교회) (강 윤 설계)

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葛西는 '철골구조의 용접에 대하여' (1933년 5월), '새로운 구조와 재료에 대하여' (1933년 1월), '凍害에 대하여' (1938년 1월), '몰탈 기와와 아스팔트 기와에 대하여' (1942년 11월) 같은 글을 통하여 건축구조부문에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고 있었다.

李均相은, 주임교수인 小河弘道의 추천으로 식민지하에서 유일한 조선인 교수가 되었다. 부임 초에는 건축제도를 담당하였다가 후에는 건축재료, 일반구조, 건축부대설비를 가르쳤다. 유일한 조선인 교수였던 그는 광복 후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다.

1-3. 교육내용에 대해서

(표5) 朝鮮人卒業生〔()は勤務先及び職級〕

1919年卒業生 : 李起寅(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技手) 朴吉龍(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技手)	金一鎮(不祥) 金貴順(京鐵道廳會計課)
1920年卒業生 : 金世演(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技手)	1937年卒業生 : 金熙春(總督府會計課建築係技手)
1923年卒業生 : 張然榮(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技手) 李元植(大同興業株式會社)	李木梁(不祥)
1924年卒業生 : 金舜河(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技手) 李南舛(不祥)	1938年卒業生 : 愼武成(鐵道局工務課技手) 尹台燮(不祥) 張起仁(朝鮮工營株式會社) 朴虎昌(鐵道局工務課)
1925年卒業生 : 李均相(京城高等工業學校助教授)	1939年卒業生 : 劉惠鎬, 吳三用, 朴大圭, 朴尚圭
1926年卒業生 : 李科漢(朝鮮石炭工業株式會社) 金衡七(靑興府) 朴東鎮(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 孫民秀(鴨綠江水電)	1940年卒業生 : 申悅秀, 張龍雲, 劉建庸, 李龍海
1927年卒業生 : 金東舛(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	1941年3月卒業生 : 金正秀(總督府會計課建築係技手) 鄭用植 宋旼求(清水組東京本社) 金冕式, 田昌澤, 朴鎮厚
1929年卒業生 : 金海卿(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	1941年12月卒業生 : 徐承九, 朴漢鎮, 李洪九
1930年卒業生 : 劉相夏(京城府營繕係)	1942年卒業生 : 李中性, 高興涉, 吳天福
1931年卒業生 : 兪元濬(朝鮮總督府官房會計課建築係) 金河鎮(鐵道局平壤事務所建築區)	1943年卒業生 : 金載鴻, 金鉤在
1932年卒業生 : 李天承(朴吉龍建築事務所→滿鐵工事課)	1944年卒業生 : 劉弘相, 金永吧
1934年卒業生 : 金昌日(朴吉龍建築事務所)	1945年卒業生 : 金棋桓, 尹鳳基
1935年卒業生 : 李漢哲(京畿道會計課營繕係技手)	終戰當時2年生 : 李昌甲
1936年卒業生 : 金在哲(總督府會計課建築係技手) 韓哲鼎(平壤府廳營繕課技手)	終戰當時1年生 : 閔丙微



태화기독교 사회관(1938~39. 강운 설계)



전라남도 평의회의장(1932. 김순하 설계) 한국인 건축가가 활동하던 1930년대는 합리주의, 기능주의, 모더니즘 건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919년부터 1945년까지 졸업생은 총405명이었다. 그 중에서 일본인은 342명(84.4%), 조선인이 63명(15.6%)이었다. 여기에서 광복후, 한국의 건축계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조선인 졸업생들에 대해서 "朝鮮總督府及所屬機關職員錄"(朝鮮總督府編, 1926-1940), "朝鮮技術家名簿"(朝鮮工業協會編, 1939년), 朝鮮建築會名簿(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의 1923년, 1925년 1927년, 1928년, 1929년, 1930년도의 회원명부)를 이용해서 근무지를 알아 내었다.(표5)

그들의 근무처는 총독부 건축과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철도국 공무과였음을 알 수가 있다.

2. 그의 교육기관

2-1. 사립 대동공업전문학교

1938년 6월에 평양에서 개교한 대동공업전문학교는 1941년부터 졸업생을 배출하였다. 이는 조선에서 건축교육이 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당시에 소규모 이기는 하지만 지방에서 건축교육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상당히 의미 깊은 일이다.

이 학교는 경성고공과 비교해서 개교시기도 늦고, 또한 남북분단의 상황에서 자세한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1939년의 "朝鮮學校一覽"과 1939년 간행한 "朝鮮技術者名簿"를 통해서 그 학교의 성격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939년 5월 현재, 대동공업전문학교의 교세는 교직원 17명(일본인:9명,조선인:8명), 학생 159명(일본인:6명, 조선인:153명)이었다. 이는 앞의 경성고공 교직원과 학생들의 구성비와는 대조적으로 조선인 중심의 학교였다.

건축과의 교수로는 早稻田大學 출신의 水野仙一이 있었다. 이 학교 출신의 건축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바가 없다.

(표6)

<p>■ 日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東京工學大學：李龍在(1927年卒業：總督府官房會計課勤務), 金宗亮(1927年卒業：總督府官房會計課), 金亨杰(1938年卒業) ○ 早稻田大學：金充基(1928年卒業：總督府鐵道局工務課), 李充淳(1932年卒業：總督府官房會計課), 嚴德紋(1943年卒業), 姜明求. ○ 日本大學：權景埜(1936年卒業), 白鎮基(1938年卒業：總督府), 金漢涉(1941年卒業), 金台植 ○ 横浜工高：金澤辰(1930年卒業), 白石晃(1936年卒業), 金重業(1942年卒業) ○ 東京興亞高等工業學校：崔昌奎(1938年卒業) ○ 東京武藏高等工業學校：金東淑, 金枝鵬 ○ 福井高等工業學校：金昌集 ○ 關西高等工業學校：姜允(1923年卒：보리즈 建築事務所) 	
<p>■ 滿洲</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南滿洲高等專門學校：金東珪 	
<p>■ 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네소타立大：朴仁俊(1927年卒業：朴仁俊設計事務所) 	

(資料：「技術家名簿」及「各學校卒業生名簿」)

3. 해외유학자

국내에는 건축교육기관으로서 전문학교가 최고기관이었고, 대학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당시의 사회상황은, 식민지 지배자였던 일본으로 유학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미국 유학생도 있기는 했으나,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朴仁俊 뿐이다. 이들 유학생을 학교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6)

1930년대말 부터는 해외에서 건축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귀국하여 총독부의 건축관계 부서를 중심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 조선인 건축가의 탄생

1919년 경성고공 건축과 5명의 첫 졸업생중, 두 사람의 조선인이 있었다. 李起寅과 朴吉龍이었다. 그들은 졸업후 같이 총독부 관방회계과 건축계에 들어가, 技手가 되었다. 이들의 졸업 및 사회진출은 조선인건축가의 탄생 시점이었다. 李起寅은 구조설계를 담당하였고 朴吉龍은 설계에 종사하였다.

박길용은 13년간 총독부 건축과에서 근무한 후, 1932년 독립해서 "朴吉龍建築事務所"를 설립하였다. 朴吉龍의 총독부시절 대표작은 경성제국대학본관(1931년 준공)이다. 1937년 준공한 화신백화점은, 그가 독립한 후 설계한 것 중 대표적이다. 그의 사무소는 당시로서는 드문 조선인 경영의 건축사무소였다. 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것 중 중요한 것은, 조선생명보험사옥(1930년 준공), 한청빌딩(1934년 준공), 이문당(1943년 준공) 등이 있다.

1926년, 경성고공을 졸업한 朴東鎭은 1938년까지 총독부 건축과에서 근무하였다. 1938년부터는 건설회사를 경영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학교가 많은데, 고딕양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앙중학교 본관(1835년 준공), 보성전문학교 본관(1943년 준공), 보성전문학교도서관(1937년 준공)이 그의 고딕풍 대표작이며, 조선일보사옥(1935년 준공)처럼 건물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서 합리주의적인 건축도 설계하였다.

1923년 日本關西高等工業學校를 졸업한 姜銜은, 당시 선교사 건축가로서 일본에서 활약하고 있던 보리즈의 건축사무소에 들어가, 실무 경험을 쌓았다. 그후, 보리즈 건축사무소의 조선관계 일이 늘어나, 경성사무소를 담당하였다. 기독교 계통의 건물설계에 종사하였다. 그의 작품은 보리즈의 영향을 받아, 고딕양식이 주류였다. 그런데 태화기독교사회관(1939년 준공)은 내부는 고딕양식이지만, 외관은 한양절충식이다.

단, 여기에서 당시의 조선인 건축가들의 경향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선인 건축가들이 등장하는 1929년경은 한국에서도 19세기 이전의 양식건축이 점차 사라지고 근대건축의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였다. 사실은 박동진, 강운의 고딕양식을 제외하면, 많은 건축가들이 근대주의 건축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유원준, 김희춘으로 이어지면서 합리주의, 국제주의 건축이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